

2017년 12월 15일, 한경면 저지리 저지리사무소, 이효순 조사.  
좌효천(여, 1923년생, 한경면 저지리)

- 줄거리: 가난한 송씨 부부가 산책을 하면서 벌판에 돌을 아홉 개를 늘어놓고서는 너희는 복도 좋고 팔자도 좋은데 자신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하고 한탄을 하였다. 그때 그 아홉 개의 돌에서 도깨비들이 나와서 송씨 부부를 부자가 되게 해주었다.  
어느 날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도 말라가니 도깨비들 짓이라고 생각하여 도깨비들을 내쫓을 궁리를 했다. 그래서 남편은 도깨비들에게 옆 부잣집 마당이 탐이 나니 오려다가 자기 집 마당에 불일 수 없다면 각자 흘어져 살라고 제안한다. 큰소리치던 도깨비들도 그것만큼은 할 수 없어서 각기 흘어져서 서낭으로 불리는 신이 되었다.

**[제보자]** 옛날에 어디 육지 송씨가 많이 살아난 곳이 있다 해요. 부부가 막 가난하고 먹을 거 엊엉 죽을 정도로 가난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부부가 이제는 산책을 나갔다 허여. 나간 여긴 출왓이라고 허고 거기는 벌판이라고 허지이. 벌판에 가서 돌을 아홉 개, 아홉 개를 좌악 놨다고 합니다. 아홉 개 놔서 허는 말이  
“너희는 복도 좋고 팔자도 좋다.”  
돌세기고라  
“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도 없느냐? 너희는 복 좋다.”  
복 좋다니 그때 와르르르 나온 것이 요만씩힌 사람이라. 나와서  
“우리가 삼 일에 부자 만들겠습니다.”  
이렇게 허니  
“아, 경 허라.”  
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니 삽시에 부자가 됨을 것입니다. 막 부자가 됬니. 그 대신 그 부인이 출출허게 막 유울어. 남편이가 생각허길, ‘하이구, 요놈덜이 밤이 장난 헤부는 것이 아닌가?’ 이렇게 해서  
“저 부인이 아기 서는 거 닳다.”  
허니  
“뭣이 필요허우꽈?”  
“웨, 수박이 그립다 허니 그거 어쩌면 좋으코.”  
허니, 그 돌세기 막내가 허는 말이

“그거 사오믄 뭐주 뭐.”

“어디 강 사올 거냐?”

“남양에 강.”

그렇게 허니

“강 사 오라.”

허니, 아침에 간 놈이 어둡기 전에 한 착 손엔 웨 들르고, 한 착 손엔 수박 들르고, 것이 씨앗이랍니다. 그래서 하이고, 대주가 허는 말이 ‘이놈들 큰일났다. 우리집 부잔디 이제 각시도 일러불고 이젠 큰일났다.’ 해서

“아, 그러면 너희들 내가 혼 가지 묻겠다.”

하니

“물을.”

“저 아무 사람네 부잣집 마당이 마음에 드니 그 마당을 둘라당 우리집 마당에  
붙일 수 있느냐?”

이렇게 허니

“아, 그거 문제싯우가? 떼어 오주 뭐.”

제사허젠 쉐꼬지 아홉 개를 대장간에 강 쳐 와서, 하나씩 주면서

“그 마당 둘라오라. 둘라와서 그 마당 우리집 못 붙지믄 다 흘어지고 살아라.”

이렇게 대주가 말하니

“경협주.”

허연, 그 쉐꼬지를 아져서 석 달 열흘을 그 마당을 일루와난, 일로 박으민 영 허민 헤싹. 혹이 돌 랑 올 수가 있어? 아, 경 허니

“우린 약속대로 그 집이 못 들어가민 어떻 허코?”

허연, 흘어졌다 협니다. 그래서 이젠 다 흘어져서 벨도 가서 서낭, 불미에 가도 서낭, 본향 가도 다 붙어가지고 그래서 아홉이 다 흘어졌어. 그때 흘어진 것이 벨도 큰 서낭이 있지요, 불미간에도 강 하나 붙으곡, 본향에도 강 하나 붙으곡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딱 흘어져 있어.

- 핵심어: 도체비(도깨비), 서낭, 마당, 돌, 불미(풀무), 마당, 본향(본향당), 송씨, 부부